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시드니가톨릭신문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07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필리 2,5)

2014년 5월 1일 (월간)

[5월, 성모성월] “어머니 당신의 품안에”

성모성월인 오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 우리 모두 마음모아 성모 어머니께 손에 손잡고, 묵주를 들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일치와 평화를 위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일생과 성모님의 삶은 하느님 아버지께 (Fiat) 순명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생이었다.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 뜻에 ‘네’ 라고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는 청하면서 오월의 첫날을 시작해본다.

하느님은 삶의 고통을 치유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엄청난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만 고통 받는 사람과 함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뿐이다. 가끔은 고통과 원망과 회의 앞에서 흔들릴지라도 그렇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비야 그것 사랑이네)

호주 시드니성당으로 사도직을 받고 설렘도 잠시 하루하루가 초조해졌다. 신학생이던 조카의 임종이 언제일지 몰라 마음이 조여 왔다. 꽃다운 나이 26살, 그는 투병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태연하게 받아드렸고 고통 중에도 모든 기도를 함께했다.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고 10개월간의 투병생활은 우리 가족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어 울부짖을 때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던 그분의 손길, 이름도 모르는 천사의 도움,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수많은 신자들의 기도, 신부님들의 안수와 병자성사, 장례식까지 제주교구 신학생으로 본분을 다하도록 배려해 주신 주교님, 넉넉지 않은 학사 용돈을 아껴 봉헌한 광주교구 신학생들과 교수 신부님들의 봉헌금, 계획에 없던 바자회를 열어 도움을 주신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가족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안고 있는 것이다.



조카는 임종 전에 하느님이 자신을 어서 오라고 부르신다고 했다.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갈릴레아로 오라고 부르신다고 했다. 큰 수녀님이 호주로 가는데 하느님께 잘 보달라고 부탁해줘,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는 하느님 품으로 갔다. 삼우를 지난 다음 날 호주 행 비행기를 탔다.

고통을 통한 하느님의 사랑은 체험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몸부림치며 아파했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그분이 품에 안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모님께서 품에 안고 가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가도록 약속했다는데, 그의 말대로 오후 4시쯤 평안한 모습으로 데려가셨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 곧 사람과 직무에 대한 충실성, 제 시간을 지키는 것, 존경, 친절,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말과 행동 같은 작은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등잔불을 태우는 사랑의 방울들이며,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들이다. 작은 행위를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한(恨) 많은 이 세상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훌쩍 떠날 적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가져갈 것 하나 없는 빈손이다.

동행해 줄 사람 하나 없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 쓰고 쥐꼬리만큼 남은 돈 있으면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다 쓰고 행여나 사랑 때문에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남아 있다면 미련 없이 다 떨쳐버리고 “당신이 있어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만나 남은 인생 건강하게 후회 없이 나누며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웃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한, 결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톨스토이 말대로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떠나 가장 힘센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겸손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도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워 그 자리에 가장 행복한 하느님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어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가족에게 낮추고 이웃에게 낮추고 주님 앞에 낮추어야 한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단 한 사람 일지라도 그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행복하여라! ...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시편1, 1-3)

아름다운 계절 성모성월에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하며 어머니 품에 안기어 사랑받고 싶다. 자신을 비워 가장 행복한 하느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어 내려가신 어머니의 길을 함께 걸으며....

좌순선 인노첸시아 수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젊은 날의 실수는 삶의 자양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삶의 위대한 스승이며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장

성장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픔이나 자신의 한계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함에서 진짜 심오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관습을 깨뜨리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 보셨습니까?



“일어나 비추어라”

성령봉사회 피정

성령봉사회의 2014년 피정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핏발에 있는 Peter Canisuis House 피정센터에서 50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Peter Canisuis House 는 예수회 수도사제들의 영성 교육관이었던 곳으로 다채로운 식사와, 참여인원 전원이 독방이 가능한 숙소, 큰 화면과 첨단 AV시스템을 갖춘 홀 등의 부대 시설과 환경이 편리하고 깨끗했다. 무엇보다 언제나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개방된 채플이 있어 피정장소로 훌륭했다.

“일어나 비추어라”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피정은 지난해에 다소 뻘뻘하고 엄격한 일정으로 실시했던 봉사자 소양교육 피정과 달리 참가자 스스로의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고 그에 따른 기도와 각오를 새로이 하는 자신과의 약속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유롭게 혼

자서 충분한 휴식과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했다.

피정에 함께 한 좌 인노첸시아 원장수녀는 피정 첫날의 다소 긴장되고 서먹한 분위기를 독특하고 색다른 진행으로 금새 환한 웃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이끌며 참가자 전원이 한마음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둘째 날 참석한 전 스테파노 신부는 “일어나 비추어라”라는 주제 말씀을 일상과 연결하여 쉽게 풀어 강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웠다.

참가자들은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겪었던 생생한 하느님 체험담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앞으로의 각오도 나누면서, 기도와 말씀이 풍성하고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로서 단단하게 결속이 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기도요청,

교황님, 아시아 청년대회, 순교자 124위 시복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8월 18일까지 정오 삼종기도 후에 주모송 봉헌요청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에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데 지쳐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과 희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빛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구장으로서 한 가지를 부



탁 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8월 18일까지 정오 삼종기도 후에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교황님, 청년대회, 시복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치며 마음을 모아주시길 권고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총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2014년 부활메시지 중에서)

가정 기도는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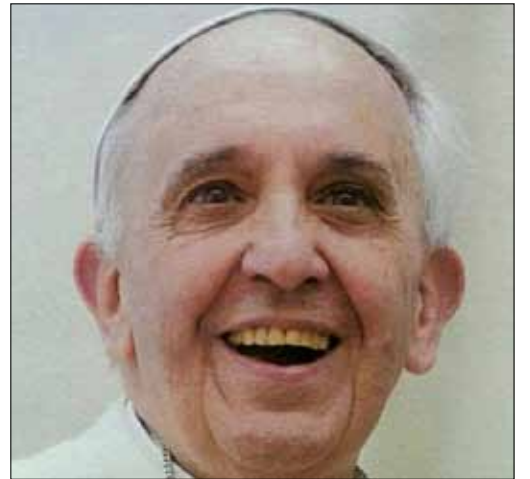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교 시노드 앞두고 전 세계 가정에게 보내는 서한]

사랑하는 가정들이여!

이 편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는 10월 바티칸에서 열리게 될 행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계 주교 시노드 특별회의로, ‘복음화 맥락에서 가정에 대한 사목적 도전’이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가정이 당면한 새롭고도 급박한 사목적 필요에 부응해 복음을 선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교 시노드는 전 세계 지역 교회들의 주교와 사제,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등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실질적 제안을 통해, 또 기도라는 중요한 지원을 통해 이 모임 준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들의 이 지원이 특히 중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이 주교 시노드는 특별히 가정을 위한 회의입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 혼인과 가정생활, 자녀 교육의 과제, 그리고 교회의 삶에서 가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저는 주님 봉헌 축일에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 성탄 40일째인 이 날, 성모님과 성 요셉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와 주님께 봉헌하셨고, 성령의 감도로 그들을 불러 온 나이 많은 시메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았다고 전합니다. 시메온은 두 팔로 아기 예수를 안고서는 마침내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며 하느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안나는 고령이었지만 아기 예수를 보고 활력을 얻어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두

젊은 부모와 나이 많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장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로 모이고 세대들을 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도취와 고독, 슬픔을 극복하는 사랑의 무한한 원천이십니다.

한 가족으로서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식사, 휴식, 집안일, 여가, 기도, 여행과 순례,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우리한테로 옵니다. 그분은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이여, 주교 시노드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교회를 풍요롭게 해주는 값진 보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실과 사랑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성모님과 성 요셉의 보호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일치해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베데스다 천연 건강즙
정성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한끼 식사값으로 가족의 **한달 건강**을 챙기세요
베데스다는 無설탕 無방부제 無색소 원칙
오직 호주에서 재배된 신선한 야채와 과일만을 사용합니다.
시드니 전지역 배달가능합니다.
2 Wallace St Sefton 2162
9786 4945 / 0425 677 878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이명순 데레사

영양돌출전문점
북창동 순두부
9868 4300 박만원 (토마스)
10/74 RAWSON ST, EPPING

글로리 병원
Glory Medical Centre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MBBS(Syd), FRACGP
원장 **이욱배 / Dr U.B. Lee**
Mon - Fri 9am - 6pm / Sat 9am - 1pm
18 Bridge St, Lidcombe
T.9649 3333 F.9649 3366

Oh-My
오-마이 김밥
파티, 결혼 및 장례 음식
el 9718 1118 / Mob 0416 209 750
594 Canterbury Rd. Belmore

아이씨 안경원
i see OPTICAL
정밀한 시력검사
최상의 고객만족
각종개인보험 즉석처리
녹내장, 망막 황반변성, 백내장, 시야검사
당뇨 환자의 눈검사, 어린이 시력진단
안경수술 전문의 권의서,
한국인검안사 6명 근무
T 9858 3886 116 Rowe St Eastwood 2122 (마락식당옆)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분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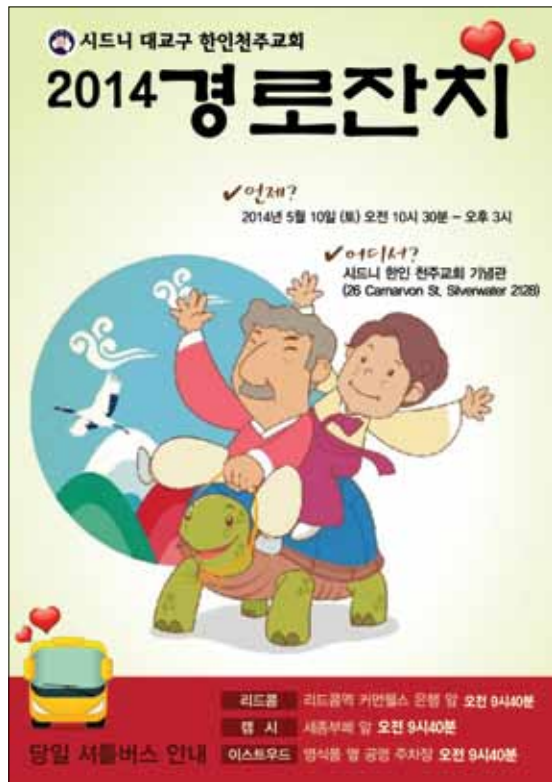
대호여행사
EASTWOOD
김기남 마리아나 이스트우드 9874 3311
Mobile 0414 433 611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아시아나 특가발권
전세계 항공 예약 및 호텔 판매

2014년 경로잔치

본당의 2014년 경로잔치가 5월 10일(토) 오전 10시30분 본당 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경로잔치를 준비하는 정영수 사도요한(총회장) 형제는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열린 임시 사목회의에서 참석 예상인원 및 초청관계, 광고, 음식, 선물, 교통편, 안전, 안내, 응급대처, 여흥시간 등 잔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 점검하였다.

본당의 경로잔치는 본당 신축역사와 맞먹는 오랜 전통을 가진 행사로써 한인 교민사회 최대의 노인 잔치이다. 전 교우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번 경로잔치를 통해 자칫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잃기 쉬운 효(孝) 의식을 다시금 일깨워 하느님 공경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번 행사의 진정한 목적이 될 것이다.



1분 묵상

“부활의 기적”

베드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성당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선생은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 기념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좋아하셨나요?”
베드로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척이나 좋아하셨단다.”
“어떻게 좋아하셨나요?”
“어린이들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지.”
그러자 한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일어나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즐겁게 놀았단다” 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선생의 절뚝거리던 다리가 정상이 되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부활하셨어요.”

(시와 그림: 김요한)



카메라 성 목요일부터 부활성야까지의 전례 중에서



▲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성 목요일)



▲ 수난 감실에 성체를 모시고... (성 목요일)



▲ 수난 예식전의 신부님 (성 금요일)



▲ 십자가 친구 (성 금요일)



▲ 어둠과 고요 속에 주님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 부활성야)



▲ 부활의 기쁨과 함께 계란을 나누며 (주님 부활성야)

패밀리 데이 케어
Croydon • Newington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공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한 신나고 재미있는 한글 교육 및 영어 교육
★ 가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요, 수, 과학, NIE
★ 음악 · 미술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 간식 · 점심 제공 센터링크 보조(CCB,CCR)
대상연령 3세~취학전 아동
전화 문의: 0422 647 515 (Croydon)
0425 234 130 / 9648 2786(Newington)

NOBLE KIA TOYOTA SUZUKI
Chullora / Greenacre
한국인 컨설턴트
에릭 리
사도요한
★ Special Finance Offer 진행중
0498 888 009 elee@noblekia.com.au
8756 9871(직통) 121 Hume Hwy Chullora

AECO DENTURE CLINIC
에코 틀니 전문 클리닉
Dental Prosthetist 이상현 안토니오
“정성을 다해 틀니를 제작해 드립니다.”
전체/부분 틀니
부서지거나 손상 된 틀니 수정/교정
헐겁거나 맞지 않는 틀니 수정/교정
예약 전화 9874 1099, 0407 380 390
주소 1/19 Rowe Street Eastwood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병원” 성모치과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다.드림 Outlet
아동복 빅사이즈
여성캐주얼 미씨캐주얼
185 Beamish St Campsie
Mob: 0414 588 700 (박 멜라니아)

호주 청정우·화환 한국택배 전문업체
동서유통(벨모아)
원하시는 부위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전지역 꽃배달
경 조사용 꽃 배달 서비스 실시!!!
동서 유통 이수용 다니엘 070 7884 7560
351A BURWOOD RD. (동서 정육점 직영)
BELMORE 2192 T. 9750-2694
M. 0425 213 503

NEWBORN NB
BUILDING & CARPENTRY
신축, 증축, 실내 인테리어, 샤피팅
파골라, 데크, 마루 시공, 화장실 레노베이션, 페인팅
간단한 핸드맨일 문의도 환영
ABN : 35 189 753 315 / LICENCE NO : 257998C
M 0430 379 269 M 0421 073 706
General Carpentry / Maintenance / Repair / Basement / Shop Fitting
Remodeling / Owner Builder Assistance & Renovation
Patio & deck / Bathroom / Kitchen

“Walk in Love”

Walk in Love 라는 사명감으로 39명의 봉사단이 파푸아뉴기니에 다녀 온지도 어언 6개월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다녀온 한 단원은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조여온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파푸아뉴기니 제1기 봉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파라다이스 장학회를 설립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2기 봉사단을 모집하면서, 지난해 선발되어 봉사를 다녀온 단원들의 봉사전과 후의 느낌들 그리고 봉사현장에서의 느낌과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쓴 주옥 같은 글들을 편집국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지면 관계상 다 실지 못하고 몇 편만 간추려 특집으로 실어봅니다. (편집국)

조용현 요셉: 교육팀 - 스포츠담당, 직장인

봉사 가기 전: 내가 생각하는 봉사는 희생이다. 내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에 충실한 것이 봉사라 생각하기에 싫든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이번 기회가 내가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고 항상 주님을 찾았는지 확인해 보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봉사를 마친 후: 이번 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첫째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되었다. 수녀님들이 학생들과 학교 안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참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수녀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꼈다. 어떤 학생은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는 2nd chance -인생의 두 번째 기회” 라고까지 말했다. 하

느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번 기회에 감사를 배우게 됐다. 학생들은 공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재미있게 놀고 그 순간에 감사했다. 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어져 피가 나와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그들의 웃음에는 항상 순수함이 묻어 나왔다. 우리는 예쁜 옷들, 최신 핸드폰, 다양한 컴퓨터게임 등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있는데... 부끄러웠다. 이들을 보면서 좀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샤워를 하는데 물이 안 나오고 변기의 물을 내릴 수 없어 당황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른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풍족함에 부모님께 감사 드린다.

셋째는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 지금까지 타성에 젖었던 신앙생활이 주님을 다시 내 기동으로 삼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아이들의 질문 중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엿보면서 나의 신앙도 더불어 키워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다.

김형환 세레자요한: 의료팀, 치과의사

봉사 가기 전: Dear Lord, I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travel to PNG to volunteer my skills that you have blessed me with so that I may share your love with the people we meet whatever help we may be able to provide for the community, we do with a humble heart. I hope to share your love but who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your grand plan for all people as you have created each one of us in your image. I pray that I will be able to learn from the PNG people of your abounding love and mercy and that the Holy Spirit will open our hearts to receive you as favor and Lord. Please protect us for a safe journey.

봉사를 마친 후: 이번 봉사활동은 주님께서 내게 진실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PNG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다.

쓰레기가 난무하는 거리, 물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설들, 단순히 우리들이 호주에 산다는 것이 요행이 아닌 것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해야 될 일들을 비춰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은 절대로 물질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주님의 말씀은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시켰으나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으로 부족한 그것만을 생각하며 항상 투덜거리고 그것을 채우려 하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나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번 봉사로 내가 가진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왔다면 나의 다음 걸음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권고로 이 길에 들어섰고 주님의 계획은 지금보다 더 나아갈 것이다. 시편 23장이 오늘 나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한혜림 크리스티나: 영어수업 보조, 9학년

봉사 가기 전: 나는 아직 정확하게 자원봉사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부모님이 좋은 일이니 따라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지원했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있는 동안 외출도 못할 만큼 불안한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 무섭다. 또한 나는 아직 어려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저 새로운 상황에서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면 이번 일에 만족할 것 이다. 이 봉사를 마치면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내 자신의 생각과 행복 그리고 고교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로 새로운 삶이 전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바램일 뿐이다.

2nd day: 완전히 탈진이 되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해보니 첫 수업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 PNG의 학생들이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우리를 대해주어 눈물이 날 정도였다. 10명에게 피리를 주고 음을 알려주었는데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우리들 대신 바로 음을 따라 하며 행복해 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겨우 한 개의 자그마한 악기를 받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어야 하는 것이란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3rd day: 영어 수업시간은 정말로 쉬지 않고 떠들어야 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의 입을 보고 새로운 단어의 발음을 흉내 내며 아주 작은 내 습관도 따라 할 정도였다. 선생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피곤한 순간들이었지만 나에겐 엄청난 선물이 되었다. 무엇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이 모든 일들에서 나는 정말 주님의 위력을 보았다.

4th day: 오늘은 학생 옆에 앉아 그

들이 무엇을 하는지 눈 여겨 보았다. 노래를 하는데 천천적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넣으며 노래를 만들어 가는 그들의 능력이 송고해 보였다. 왜 내가 노래를 못하는지 알았다. 나는 그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찬미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 학생의 목소리는 천상에서 주신 것이라 조금은 하느님께 섭섭하다고 했다. 하느님은 이런 내 투정도 이해해 줄 것이다.

6th day: 오후에 아델라 선생님을 도왔는데 자꾸 피가 났다. 30분 이내에 다 하자고 한 일이 거의 2시간이 걸렸다. 미안했다. 지금 나는 뭐하고 있지? 이런 물음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생각했던 봉사의 내용이 이런 것인지, 내가 정말로 원했던 미지의 세계에서의 봉사를 마쳐가는 지금의 내 맘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뭔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단지 내 꿈이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간 것 같다. 이 순간들이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이 계속되기를. 그런데 배가 고프다. 먹고 싶은 유혹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네.

봉사를 마친 후: 내가 그 긴 시간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제 내 인생의 물음들에 조금은 답을 할 수 있다. 그들을 두고 온 것이 허전하다. 태권도사범님, 사이몬 삼촌, 수녀님들, 9학년 친구들, 심지어 버블검과 아이스크림까지도. 나는 다시 PNG에 갈 것이다. 많은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좋은 꿈을 꾸도록, 그래서 그 꿈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까지와 달리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생겼다.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내 인생에 좋은 가르침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에 성실할 것을 다짐한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최 인정 (예비신자): 물리치료사

봉사를 마친 후: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그들과 보낸 1주일간의 생활이 천국에 다녀온 느낌이다. 천사 같았던 까리파스 학생 성가대의 노래에 울컥하며 감동 받았고 작은 것에도 마치 큰 것을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손을 잡아 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현지인들을 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봉사는 파푸아뉴기니에 초석을 다지고 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쪽 사정이 어떤지 알고 있지 못했기에 아주 기본적인 치료준비만 해 갔는데 솔직히 그들의 평발상태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고 학생들의 자세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근골격계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많이 놀랐다. 다음 봉사 때는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물리치료는 한번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므로 지속적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또 가고 싶다.

Healthier choice for Healthier Living

신선 자연건강식품

HealthPlus

MEKEN

버우드 본점 Tel: 02 9744 7000 / 22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시티 전시장 Tel: 02 9264 5200 / Shop 10, 324 Pitt St, Sydney NSW 2000

Cheil Finance

제일종합금융

홈 · 비즈니스론 · 상업용자 · 건설용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Commonwealth Bank 14년

제일은행 18년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pping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스/트/우/드

하나식품

모든 식료품,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친절할 서비스

- 박정철 요한 -

Tel: 9874 1581

27 Railway Pde, Eastwood

제이원 보석

J.W.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잔치 등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금 매입합니다.

T. 9763 1355 M. 0423 672 553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하느님의 종 “홍낙민 루가 일가(一家)”

한국의 천주교회를 살펴보면 순교자 다섯분이 성인, 복자 반열에 오른 네 집안이 있다. 정약종, 홍낙민, 유헌검, 윤유일 일가이다. 정약종의 가족은 부인 성녀 유소사 체칠리아와 두 자녀 성 정하상 바오로,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 세분의 시성에 이어, 정약종과 장남 정철상 두 분도 이번에 시복된다. 홍낙민의 가족은 손자 성 홍병주 베드로와 성 홍영주 바오로 형제의 시성에 이어, 홍낙민, 아들 홍재영, 손자 며느리 심조이(재영의 며느리) 세분은 이번에 시복된다. 유헌검의 가족은 유헌검, 며느리 이순이, 아들 유중철, 유중성, 유문석 다섯분이 이번에 모두 시복된다. 또한 직계는 아니지만 다섯분의 복자를 배출한 집안은 윤유일 일가로 윤유일, 동생 윤유오, 사촌동생 윤점혜, 윤운혜 정광수 부부이다. 정약종, 윤유일, 유헌검 집안의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연재를 통해 이미 상세히 기록한 바가 있다. 그러면 홍낙민 일가에 대해 적어본다.

홍낙민은 명문 풍산 홍씨로 정조임금 초기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조선시대 세도정치(世道政治)의 원조 홍국영 집안이다. 그 외에도 많은 친인척들이 상당한 벼슬길에 올라있었다. 또한 같은 남인 출신으로 공서파에 가담한 이기경 목만중과 함께 천주교 박해에 앞장섰던 홍낙안도 가까운 친척이다. 홍낙민은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얼마든지 출세가도(出世街道)를 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영원하신 대왕 천주님의 총애를 더욱 중시하여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 그가 자손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이에 관한 견고한 가르침이었고, 한편 자녀들은 이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수계하였으며 남달리 뛰어난 그들의 덕행은 모든 이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 시복되는 홍낙민 루가, 홍재영 프로타시오, 심조이 바르바라에 대해 적어본다. 선후대가 뒤 바뀐 것은 103위 성인은 모두 기해박해(1839년) 이후에 순교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홍낙민 루가(1751-1801년)

충청도 예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한양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리고 1776년 양근의 대학자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제자가 되어 4년 후 진사로 출사했으며 1788년 문과(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들어갔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기 전에 이미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했다. 그리고 가성직자 제도에서 신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1799년 모친상을 당해서도 신주를 모시지 않고 천주교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1791년 신해박해 당시 정조임금의 명에 따라 천주교를 멀리하였다. 물론 공식적으로 천주교를 배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교리를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홍낙민 역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의금부에서 문초를 받았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나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옹호하였다. 처음에는 유배형을 받았으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

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며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천주교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억지로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이를 멀리하였으니 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제는 천주교를 버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증거 한 홍낙민은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1801년 4월 8일 그의 나이 50세에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이승훈, 최창현, 정약종, 홍교만 등과 함께 참수 순교했다.

홍재영 프로타시오(1780-1840년)

충청도 예산 명문가 출신으로 1801년에 순교한 하느님의 종 홍낙민 루가의 아들이다. 어머니도 초기 한국교회에 우뚝 선 정약종의 조카이니 외가도 쟁쟁한 집안이다. 그리고 홍재영은 1839년 순교한 성인 형제 홍병주와 홍영주의 숙부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낙민에게 교리를 배웠다. 장성한 뒤에는 동료들과 함께 교회활동에 참여하거나 교리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로 체포된 뒤에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때에 홍재영은 혈기왕성한 20세의 청년이었다. 부친처럼 순교로 신앙이 전부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도 피가 뜨거웠다. 신앙을 등진 그는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빛 고을의 어둠 속에 있던 그에게 빛이 비쳤다. 그리하여 냉담하던 그의 신앙은 다시 뜨거워지고 이전의 잘못을 보속하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의 가문에 흐르고 있던 뜨거운 믿음의 피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이다. 수북이 쌓인 성경의 먼지를 털며,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사람이 되시어 수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니 참회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묵주를 다시 손에 들고 기도하며 천상에 계신 부친같이 굳건한 믿음을 구하니 성모님의 품에 안긴 듯 힘이 솟았다.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날마다 오

랫동안 꿇어앉아 기도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단식하였다.

1832년 조정에서는 유배자들에게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렸으나 그는 회유를 물리치고 그대로 광주 유배지에서 머물렀다. 7년 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순교의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자신에게 피신해온 신자들을 한 가족처럼 맞아 주었고, 여자교우 4명은 자기 집에서 한 가족처럼 지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포졸들에게 발각되어 다 함께 붙잡혔다. 40여 년의 유배생활을 하던 그에게 가해진 것은 혹독한 문초와 형벌이었다. 관장은 배교하고 교우들의 명단을 털어놓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이미 40년 전의 유약한 그가 아니었다. 순교를 열망하며 굳건하게 신앙을 증거 하였다. 눈물을 흘리는 두 아들에게 “천주를 열심히 공경하고, 나의 죽음을 기뻐하라”고 위로했다. 관장은 ‘근본이 흉악한 종자’ ‘선교사를 청해올 때 도와준 죄’ ‘교회서적 110권을 필사한 죄’를 물어 그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그는 1840년 1월 4일(양력) 전주형장으로 끌려가 예수의 나이로 참수 순교했다. 40년 전 순교한 부친의 뒤를 이어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것이다.

모세는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로 태어나기 위해 40년 동안 양 떼를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정화의 40년을 보냈다. 홍재영 역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데 40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심조이 바르바라(1813-1839년)

인천 양반가문 출신으로 나이 20세에 홍봉주 토마스와 혼인하여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는데 지능이 낮아서 아무리 노력을해도 중요한 교리 외에는 배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댁에 흐르는 믿음---1801년 순교한 홍낙민이 시조부, 그녀와 같이 체포되어 순교한 홍재영은 시부 그리고 잠시 배교했던 남편도 1866년 병인박해 때에 순교했다. 심조이의 신앙은 말할 수 없이 견고했고 특히 애덕 실천이 극진하였다.

전라도로 유배간 시부 홍재영 집으로 피해온 교우들을 기쁘게 맞아 들였다. 그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아끼워하거나 삶은 내색을 조금도 하지않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거두어 주었다.

어려운 살림이다 보니 음식을 손님들에게 주고 나면 심조이의 밥그릇은 늘 비었기에 부엌에 들어가 물 한 대접으로 주름을 달래는 그 모습을 보고 교우들은 눈물지며 “누가 저 여인을 보고 교리를 모르는 무식한 여인이라고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1839년 기해

박해의 폭풍에 시부를 비롯한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끌려갔다. 평소 허약했던 그녀지만 수 차례 혹독한 고문에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심약해진 남편은 배교를 선언하였지만, 그녀는 부부 사이의 정을 끊으면서까지 천주교를 올바른 도리로 믿고, “십자가 앞에서 서약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신앙을 증거 했다. 고문으로 병을 얻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젓먹이가 굶주림으로 품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먹는 것이 부실하니 젖이 나올 리 있겠는가? 굶어 죽은 젓먹이를 품에 안고 실성한 이 성례 마리아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정인 모정을 넘어서 이 고통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여인! “죽음은 영혼이 승천하는 것”이라며 부활을 굳게 믿었던 여인! 옥중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순교하니 그녀의 나이는 겨우 26세였다.

아들도 하늘에 오른 어머니를 따라가니 고통도 눈물도 배고픔도 없는 천상에서 가족이 영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온몸으로 사랑의 찬가를 부른 애덕의 화신 심조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25,40) 다음은 하느님의 종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에 대해 기록할 예정이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SDT
시드니일일관광

시드니 일일관광
포트 스테판,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관광
멜번, 케언즈, 뉴질랜드 남섬 등

8214 8822 G Floor 302 Pitt St. Sydney
0411 457 222 김예환 스테파노

다이아몬드생수

“맹그로브 마운틴의 천연 심층 암반수”
물은 물맛이 알차다!

15리터 \$9.90
Cooler 대여해 드립니다.

0416 100 499 / 0404 044 117

WISDOM EDUCATION
OC, SELECTIVE & HSC SPECIALISTS

- ✓ Primary School subjects,
- ✓ High School subjects &
- ✓ HSC subjects

TERM2에 등록하시면 **매학기마다 20% 할인***

Tel: (02) 8710 3466 | 3 John St, LIDCOMBE
www.WisdomEducation.com.au
*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라스마니아로 오세요

공항 픽업 부터 관광 숙박 식사 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단체, 피정향영

0400 876 663
03 6273 1162 홍 순기(다니엘)

살아 숨쉬는 공동체



5월 4일 부활 제 3주일
루카 24,13-35

질문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 마음의 눈이 가리어 내 주변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 힘든 시련이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던 감동을 나누어 봅시다.

35 그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게 된 일을 이야기 해주었다.

→ 성체성사 안에서 위로와 힘을 받았던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묵상

실의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주시고 식탁에서 빵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진 미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그들 신앙의 원(元)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느님 백성인 그리스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과 부활이 신앙의 원체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사 때 이루어지는 말씀의 전례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원하지만 하면 언제든지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의 은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일상 속에서 깊이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방리 사제관에서 생활 할 때의 경험입니다. 공동 사제관이 생기면서 은퇴하신 경갑룡 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되는 매일 미사에 지방리 공소 교우들이 참석했는데요. 당시 본당 신부님의 눈에는 공소 신자들의 모습이 월 1회의 공소 미사에 참석할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미사의 은총을 깊이 느끼며 뜨거운 감동을 체험해야겠습니다.

5월 11일 부활 제 4주일
요한 10,1-10

질문

3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 나에게 선택 목자가 되어주었던 분은 누구입니까?

4.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 외롭거나 힘들 때 듣고 싶은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말해봅시다.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 내가 택한 신앙생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자녀가 성직자, 수도자가 된다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묵상

성소주일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비유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聖召)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양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본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땅이 울퉁불퉁해서 양들이 쉽게 뒤집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양을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이 편안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의 면면을 꿰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양 무리와 섞여도 자신의 양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또한 밤에는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주님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두면서 생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주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닦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 23편의 저자처럼, 비

록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 주시리라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곧 우리의 성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 집니다.

5월 16일 부활 제 5주일
요한 14,1-12

질문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 마음의 혼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6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까?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 아니냐?”

→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주님께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2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을 갖고 노력하여 어려웠던 일을 실현한 경우를 나누어 봅시다.

묵상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이다.”라

에핑건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모 제품 및 호주 토산품
9876 8282(빨리빨리)/9876 6071
0404 070 338(24시간)
27 Rawson St. Epping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머리방
에터미 회원님들께는 특별할인을 해드립니다
<꼭 예약바랍니다>
Tel: 8084 8417 / Mob: 0430 477 723
12 Edgar St., Eastwood

신개념 운동 재활병원
KIM'S HEALTHCARE CLINIC
KIM'S HEALTHCARE CLINIC
• 치료 마사지 / 운동 물리치료
• 체중 관리 / 다이어트
• 소그룹 운동 / 퍼스널 트레이닝
• 뷰티 트리트먼트
WWW.KIMSCLINIC.COM.AU
스트라스필드 9764 1088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4층
이스트우드 9858 2200 Level 2, 29 Rowe St. Eastwood

리드컴안경원
다양한 제품
친절한 서비스
최신 신상품
최신식 설비에 의한 정밀 시력검사
Medicare 및 개인보험 이용가능
9643 1000
11 Joseph St, Lidcombe NSW 2135
(중앙식품 맞은편, 해피마트 옆)

Home Plus
의전 홈플러스
의류, 주류, 토산품, 건강식품, 식품, 생활용품
블라인드 & 커튼 사업부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무료견적, 직접생산, 빠른시공
Tel: 9742 1188 / Mob. 0400 11 8282
49 - 51 Punchbowl Road, Belfield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리드컴 제과점
Joseph's Bakery
10 Joseph St. Lidcombe (중앙식품 옆)
8084 8580 0431 523 157

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탈출 3, 13-15)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참된 “진리”이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해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개자가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오신 강생의 신비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논리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많은 무형의 가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어리석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러한 생활을 뒤로 하고 점점 더 하느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은 비록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부활 제 6주일
요한 14, 15-21

질문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 예수님 때문에 인내와 사랑을 다 했던 일이 있습니까?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준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실

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작용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 온 세상에 나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희년(2000년)을 앞두고 성령의 해를 보내며 교구에서 바쳤던 기도문인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린토 전서 13장 4-7절에 나오는 “사랑의 찬가”를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사랑이 왜 성령의 최고 은사인지를 알고, 자신의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아무런 대가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1요한 4, 8) 저 또한 그동안 사제로 살면서 제가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새, 베푼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서 언제나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날개”

Vincent s d Kim

한탄의 긴 숨 몰아 쉬는
시인의 아내처럼
신 목소리 쉽게 질려대는
목탄열차 잿빛 수증기
밝은 기침을 하던 녹슨 수도꼭지는
각혈을 한다

퍼려 해도 퍼지지 않는,
나만큼 늙어버린 날개 속에
잃어버리고 잊고 있던
빛 바랜 청춘을 향해 소리를 질러본다

아직도 날아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한번은,
한번은 더 날아야겠기에
희망을 향해 소리 치듯
날갯짓을 해본다

기억의 건너편,
망각의 아름다움을 넘어
혹시 치매는 아닌지
걱정 해가며 살 때도 있지만
젊은 날 사진첩을 뒤적일 때마다
연 초록 잎새 사이
쏟아지는 물빛 파편처럼
빛으로 오신 당신!
그 빛 바라볼 시력이 남아 있음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보고
내일은
알 굶어가는 포도에
단맛 스며들길 바라며
남겨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한다

막다른 골목길
낮선 내일이 서먹하기도 하겠지만
아직도
갈 곳 찾지 못해 떠나지 못한 매미 소리가
계절의 끝 자락을 놓지 않는다

여름 보다는, 가을에 치우쳐있는 해시계와
옷 갈아입는 나무를 보고
가을을 짐작해본다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콜록 거리던
기침이 멈추고
가을 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시간표를 보면서
햇빛 배인 빨래를 개듯
하나씩 하나씩 멀어져 가는
세월을 갠다
내 기억이 다 소멸 되기 전에....

바른길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균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형사소송, 부동산, 비즈니스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예담
Ye Dam Rice Cake 禮
• 떡케익 • 달레떡
• 영양떡 • 일반떡
• 이바지/페백 • 선물세트
20년전통의 손맛 그대로~ 정성스럽게 빚어 만듭니다.
02 9740 5057
745 Canterbury Rd Belmore NSW

Silverwater POWER GOLF ACADEMY
실버워터 파워 골프 아카데미
JONG GAP KIM 김중갑 마태오
Unit 2/47 Vore St, Silverwater NSW 2128
T 02 9748 0002
M 0412 108 340

first national
REAL ESTATE | Strathfield
2013년 말 완공 예정의 좋은 투자 기회
한 주택 두 가구!!
최대 7.6% 연 임대 수입 예상
전액 Stamp Duty 면제 (\$600,000 이하)
한인성당 도보 2-3분 거리
대표 권기향 **0432 379 972** 대표전화 **(02) 9764 2999**

삼성모터스
All Mechanical Services & Repairs
Pink Slip
Blue Slip
LPG Inspection
RTA 등록 ☐ 무료 대행
Green Slip
Since 1989
TEL : 02 9683 1045
Unit B7/23-25 Windsor Rd. Northmead



꽃 길을 거닐며

봄날의 훈풍, 청정한 공기, 빛나는 잎 사이로 함박 웃음을 터트리는 체리 꽃이 현란하다. 낙화는 푸른 잔디 위에 누워 꺼져가는 생의 불꽃을 농염하게 내 뿜는다. 온몸에 적셔 드는 은은한 향과 정취는 팍팍한 삶으로 찢든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준다. 무아지경 이라고나 할까?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일상에서 조금만 비껴 가도 우리는 자연에서 가슴 속까지 축축해오는 경이를 맛보게 되는 것임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말이 상기된다

‘여정’ 성서 반에서 블루 마운틴을 찾았다. 시드니가 몸 대어있는 블루 마운틴은 유칼립스 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루마운틴은 유칼립스 잎에서 내뿜는 푸른 정기로 마운틴에 푸른 빛이 서린다 하여 붙게 된 능선 이름이다.

해마다 봄이면 그곳에서 가든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버스 한 대로 단합 대회 겸 떠난 것이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따뜻이 비추는 버스에 앉아 쳐다보는 하늘은 참 맑고 푸르렀다. 푸른 하늘에

다문다문 수 놓아진 흰 구름은 하얀 솜을 펼쳐 놓은 듯도 하다. 어디로 떠난다는 흥분과 차내를 감도는 낮선 술렁거림을 잡아 앉히고 ‘고통의 신비’로 목주기도를 바치며 여정의 첫발을 내 디뎠다.

기도를 끝낸 후 각자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하고 사념에 잠기다 보니 두어 시간이 눈 빠르게 지나 목적지인 카툼바에 이르렀다.

카툼바에서 에보니 호텔을 운영하시는 형제님이 나와 반겨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안내로 블루마운틴 가든 축제에 오픈된 가든을 쉽게 찾았다.

가든 출입구에 놓여진 동전 통에는 \$2 또는 \$6등이 쓰여있는데 그것은 일인 입장료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동전 통에 입장료를 넣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느 곳은 입구에서 가든을 지키는 사람이 입장료를 받기도 한다. 가든 주인들은 한해 동안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의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봄이면 만민에게 공개하여 가든을 찾는 이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교감을 이룬다.

블루 마운틴의 정기와 화목으로 어우러진 가든의 정취에 감탄이 절

로 샌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야생화를 보는 감격 이상으로 기예를 부리듯 꾸민 조화로움에도 그 못 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음을 잘 가꿔진 정원에서 느껴본다.

흰빛, 진홍빛, 분홍빛, 주홍빛 등의 아젤리아 꽃은 흔히 보아 왔으나 처음 대하는 아젤리아의 보랏빛과 노란빛이 경이롭다. 또한 해발 800미터 이상에서만 생존한다는 밴데롱의 탐스럽고 다양한 꽃들이 이채롭다.

윤택한 흙과 단비, 태양이 베푸는 빛의 은혜에 꽃은 피고 어디에선가 날아온 꿀벌은 보라빛 잔 꽃 속에 웅얼 날아든다. 덕분에 꽃은 종자를 만들고 바람은 그것을 나날 것이다. 바위 꽃을 피운 바위가 군데군데 꽃단지 속에 들어 있다. 다양한 색깔의 꽃과 나무, 마음을 행귀널 듯한 맑은 공기, 코에 스치는 향기로운, 순간 나는 위대하고 질서 정연한 자연 속에 그들을 진두지휘 통솔하시는 창조주의 위대한 존재와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다.

창. 조. 주. 하. 느. 님. 감사! 가만히 마음 속에서 뇌어본다.

마지막 찾은 가든의 끝 자락엔 카



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야외에 나왔어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길손들 앞에 한 쌍의 공작새 재롱이 한창이다. 수컷은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뒤 꼬무니를 쫓고쫓고 들어내 보이며 맘껏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몇 개의 가든을 둘러 나오니 체리 나무로 이루어진 가로수의 꽃 길에 열려있다.

제풀에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꽃들이 흰 눈처럼 분분하다. 가든을 둘러 보느라 피곤해진 심신을 그 꽃

그늘에 누어본다.

이 찬란한 꽃들도 한철을 보낸 후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고 죽는 일은 생명 있는 존재의 생리가 아니던가?..

낙화를 재촉하듯 불어 오는 소슬한 바람이 환상에 젖은 나를 현실로 일깨워 준다.

낮설고 서먹서먹하던 교우들의 얼굴이 한결 가깝게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이다.

(최옥자 데레사)



“그대는 받아들여졌다”

지은이: 글 류해옥 / 사진 남인근
출판: 샘터

그대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은총을 체험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헛헛한 마음이 더해 가는 것은 왜일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만, 아프니까 인생이라지만 어찌 해도 마음속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다. 삶이 보내는 신호다. 잠시 멈춰 서서 내 안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는.

《그대는 받아들여졌다》는 류해옥 신부가 직접 가려 뽑고 번역한 51편의 잠언과 그에 관한 묵상 글을 담은 책이다. 그의 영성을 관통하는 한마디 말은 ‘사랑’이다.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 받기를 갈망한다. 성경에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한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사랑이 끝났을 때, 사랑하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류해옥 신부는 햇살처럼 가만히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햇살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듯, 그 고통 안에, 그 두려움 안에 머무르다 보면 빛이 보일 것이라고. 참사랑은 거슬러 다투지도, 절망하여 추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의 다른 볼거리는 풍경을 넘어 고요한 명상의 세계로 이끄는 남인근 작가의 사진들이다. 세계 각지를 돌며 ‘감각의 유랑’ 중인 그의 사진들은 류해옥 신부의 글과 만나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함께 적셔 준다. 그림인 듯 사진인 듯 감각적 이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던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다. 또한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낸 영혼의 우물이 채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공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밴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력이 있는곳에 세게가 몰려온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